

# 공감 · 위로, 그리고 배우... '쌈마이웨이'의 수확



청춘들의 공감과 위로,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까지. '쌈, 마이웨이'가 남긴 여운이 크다.

### 16회로 종영...13.8% 최고 시청률 기록

### 나의 이야기 처럼 네 청춘들 모습 공감

KBS 2TV 월화드라마 '쌈, 마이웨이' (극본 임상춘, 연출 이나정)는 시청률 20~30%가 치솟는 대박드라마는 아니었지만, 화제의 작품이었다. 캐릭터와 연기가 좋았고, 공감과 위로가 있었다. 배우들의 열연과 다채로운 청춘들의 이야기는 월화극 꼴찌에서 1등으로의 기적을 만들었다.

'쌈, 마이웨이'가 지난 11일 16회 방송을 끝으로 종영했다. 종영 이후에도 반응이 뜨겁다. 고동민(박서준 분)과 최애라(김지원 분), 김주만(안재홍 분)과 백설희(송하윤 분) 모두 꿈과 사랑에 있어 해피엔딩이 그려지며 산뜻하게 마무리됐다. 마지막회는 13.8%(닐스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박서준부터 김지원, 안재홍, 그리고 송하윤까지 청춘스타들이 완성해 낸 작품이다. 배우들은 캐릭터에 녹아들어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안정적인 연기 필모를 그려온 배우들인 만큼 차분하게 캐릭터를 표현해냈고, 이는 5.3%의 첫 방송 시청률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린 저력이었다.

'쌈, 마이웨이'의 또 다른 매력은 공감과 위로의 점이다. 주변에 있을 법한 혹은 내 이야기처럼 와 닿는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반응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망설이던 동만은 결국 원하는 것을 이뤄냈고, 애라는 무시당하고 치어도 끝까지 도전한 끝에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됐다. 과장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주만과 마침내 스스로 우뚝 일어서실 때까지, 찌질하고 팍팍한 청춘들의 모습을, 그리고 스스로 극복하고 이뤄내는 과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누구에게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네 청춘들의 모습은 시청자와 깊은 공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공감과 함께 위로가 전달됐다. 현실과 판타지를 적절하게 조절한 이야기였다. 그 속에서 배우들의 연기는 더욱 빛났다.

공감과 위로, 그리고 앞으로 더 주목받을 청춘배우 4인방 '쌈, 마이웨이'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이다.

## '아이돌학교', 제2의 '프듀' vs 성장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의 성장 리얼리티입니다."

신유선 PD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케이블 채널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서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 ◇ '프듀'와 무엇이 다른가

'아이돌학교'는 41명 입학생이 11주 동안 걸그룹이 되기 위한 과정을 담는다. '육성회원' (시청자)의 투표 100%로 최종 성적 우수자 9명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은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걸그룹 즉시 데뷔한다. 이는 기존 Mnet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빅스틴' (JYP)은 트와이스를, '윈' (YG)은 위너를 배출했다. '프로듀스101'은 아이오아이, 위너를 배출했다.

제작진은 '아이돌학교'의 차별 포인트로 '인재 육성'을 꼽았다. "완성된 실력을 갖추지 않았어도 걸그룹 데뷔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다.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신유선 PD는 "'프로듀스101'은 준비된 연습생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면, '아이돌학교'는 방송 경험이 없던 일반인이 걸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교사진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장 이준재를 필두로 담임 교사 김희철, 음악 교사 바다와 장진영, 안무 교사 박준희와 스테파나,

체육 교사 윤태식이 함께 한다. 블랙아이드필름이 음악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바다는 "처음엔 섭외를 거절했지만, 성장에 조금씩 맞춰준다는 점에서 마음을 풀었다. 서바이벌 보단 선생님이어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걸그룹 덕후"로 알려진 김희철은 "작정 참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 ◇ 방송경험자 · 성장품화, 벌써 논란

41명의 입학생 중엔 전직 아이돌이나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자, 연예인 2세 등이 있다. 스카프 전 멤버 타샤·블루미 전 멤버 양연지·마이비 전 멤버 이유정·하이틴 전 멤버 이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빅스틴' 출신 나찌·김은서·박지원, '댄싱' 출신 이세롬과 '프로듀스 101 시즌1'의 이혜인, 김홍국의 딸 김주현도 눈길을 끈다. 신유선 PD는 "두 데뷔 의지가 강했고 당시 소속사가 없었다. 과거 이력이나 그

친구들의 경험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역차별이 아닌가 싶었다. 그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이돌학교'는 방송 전부터 출연자 인성 논란에 휩싸였다. 입학생 이혜인이 '일진설'에 휘말렸다. 전남 PD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다며 "학교 측에 연락을 취했고,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일반적인 주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남 PD는 "내부 가이드,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출연자와 접촉했다"면서 "출연자와 깊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프로그램 콘셉트를 두고 성장품화, 외모지상주의 등을 지적했다. 전남 PD는 "방송 전부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회사에서 저한테 사키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촬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향의 차이라고 본다. 요즘 여성 남성으로 나뉘서 싸

우는 것이 많다. 여성 분들이 좋아하는 예능, 남성 분들이 좋아하는 예능 등 취향이 다양한 것"이라고 말했다.

### ◇ 투표는 어떻게

'아이돌학교'는 매주 방송 전 1주일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선행 평가 투표(10%)와 매주 생방송 문자 투표(90%)로 진행된다. 전남 PD는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투표 과정에서 몰아주기, 부정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선 PD는 "1회부터 전화차 생방송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받는 모습을 아이돌 학교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방송을 보면서 자신의 투표수를 확인한다 투표 순위를 프로그램 마지막에 확인하는 모습이 전파를 탄다. 그런 모습이 '아이돌학교'의 차별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학교'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한다.

## '팬텀싱어2', 내달 첫 방송



크로스 오버 음악 열풍을 이끈 JTBC 예능 프로그램 '팬텀싱어'가 8월 11일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히든싱어'에 이어 JTBC 대표 음악 프로그램으로 손꼽힌 '팬텀싱어'는 금요일 밤을 '귀요강'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채우며, '이는 형님', '효리네 민박', '비긴어게인'과 더

불어 주말 시청자들의 불거리를 책임질 전망이다.

올해 1월에 종영한 '팬텀싱어 시즌1'은 포르테 디 콰르토(고홍정·김현수·손태진·이벼리), 인기현상(백인태·유슬기·곽동현·박상준), 흥스(프레스소(고은성·권서경·백형훈·이동신)팀 등 '귀요강' 보컬들을 발굴하며 '팬텀 싱드롬'을 일으켰다. 방송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출연하는 콘서트 매진 행진, 앨범 발매, 소속사 계약 체결 등이 이어지며 크로스오버 음악 열풍을 이끌었다.

'팬텀싱어2' 제작진은 지난 3월

20일부터 6월까지 음악 전공자, 팝페라 가수, 뮤지컬 배우, K-POP 보컬, 해외유학파 등 나이, 국적, 학벌에 상관없이 참가자를 모집했다. 제작진은 "시즌1에 비해 2배 많은 참가자들이 지원했다"며, "시즌1에서는 보지 못한 다른 장르의 음악인들도 시즌2에서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팬텀싱어2'에는 윤종신, 윤상, 김문정, 마이클리, 손혜수, 바다가 '시즌1'에 이어 '팬텀 프로듀서'로 합류한다. 국내 최고의 여성 프로듀서와 '팬텀싱어2' 참가자가 만들어 낼 시너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의 남성 크로스오버 4중창 선발 프로그램 JTBC '팬텀싱어2'는 오는 8월 11일 9시에 첫 방송된다

## 터보, 25일 3인조 완전체 컴백



그룹 터보가 3인조 완전체로 컴백을 확정했다.

12일 터보(김중국, 김정남, 마이키) 소속사 더터보컴퍼니는 "터보가 오는 25일 새 미니앨범 발매를 확정하고 가요계로 돌아온다"고 컴백 소

식을 알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터보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음악, 재킷, 뮤직비디오 등 심혈을 기울인 콘텐츠로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오랜만에 찾아오는 만큼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 멤버들 모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다"며 "수룩할 곡 모두 타이틀곡이란 애길 들을 정도로 좋은 곡들로 가득 채웠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당

부했다.

1996년 데뷔한 터보는 '나 어릴 적 꿈', '검은고양이', '트위스트 킹', 'Love Is..', '회상' 등 수많은 히트곡들로 전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2015년 12월에는 14년 만에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AGAIN(다시)'을 들고 컴백해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년 만에 다시 뭉친 터보의 새 미니앨범은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도 발매된다.

한편, 터보는 오는 9월 2일과 3일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첫 극장관 전국투어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음력 5월 20일)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황띠** 36년생 자식복을 얻는다 48년생 산행을 삼가라.60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2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4년생 사소한 잠정에 주의하라.



▶**사띠** 37년생 외출을 삼가라.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유령띠** 38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0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2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74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6년생 꿈을 접지마라.



▶**사띠** 39년생 미련을 버려라.51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3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5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7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황띠** 40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2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4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6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8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홍띠** 41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3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5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7년생 기타림을 알아라.89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황띠** 4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54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6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9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황띠**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9년생 뜻밖의 행운이 온다.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황띠** 32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4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5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6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황띠** 33년생 개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45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57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69년생 손풍에 뜻을 높이 올린다.81년생 욕심을 버려라 뜻은 이룬다.



▶**황띠** 33년생 외출을 삼가라.46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58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0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2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황띠** 35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7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59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1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3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